

Get excited Singles **BASEBALL**

2019 ISSUE

HEROES' LIFE

키움히어로즈 코칭 스태프가 밝힌 새 시즌의 목표
히어로즈 선수들의 2019 우승을 향한 출사표
웨이팅룸 급습! 영웅들은 어떻게 몸 관리를 하는가?
유니폼을 벗은 영웅들의 스타일 베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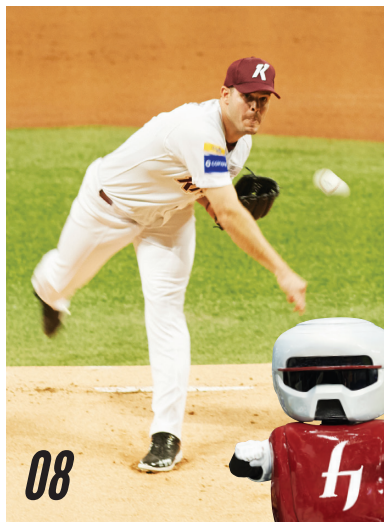
2019 KIWOOM HEROES

키움히어로즈 시대, 2019 우승을 향한 영웅들의 새로운 결의!

WEEKEND STYLE

주말 야구장나들이를 위한 스트리트 룩
5살 어려워지는 그루밍 가이드
무서운 자외선을 차단하기 위한 제품 선택법
맛과 멋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플레이 리스트

Get excited Singles **BASEBALL**



- 04 **HAPPY TOGETHER** 선수들과 함께 호흡하고 뛰면서 각자의 자리를 지키는 키움히어로즈 코칭 스태프들이 밝힌 새 시즌의 목표.
- 08 **영웅의 출사표, 홈 개막전** 3월 29일 고척돔에서 열린 히어로즈의 홈 개막전에서 만난 선수와 팬들.
- 10 **BETTER THAN TODAY**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꿈꾸는 건 모두가 마찬가지다. 히어로즈 선수들도 간절한 마음으로 더 나은 내일을 바란다.
- 20 **히어로즈의 스프링 캠프에 다녀오다** 프로야구 코칭 스태프와 선수들은 시즌을 준비하기 위해 긴 전지훈련을 떠난다. 히어로즈도 예외는 아니다.
- 24 **2019 새로운 히어로즈** 2019년은 히어로즈에게 유난히 새로운 것이 많다. 메인 스폰서와 함께 팀명이 바뀌었고, 팬들이 앉는 자리에도 새로운 이름이 붙었다.
- 25 **우리 결혼했어요!** 팀이 필요한 자리에서 꾸준히 실력을 뽐내던 장영석이 결혼을 했다. 마음의 안정까지 얻은 그가 히어로즈의 내야를 더욱 든든하게 지킬 것으로 기대된다.
- 26 **출근길에 포착한 영웅의 패션** 이른 아침에도 스타일을 잃지 않는 키움히어로즈 영웅들의 일상 패션 파파라치.
- 30 **히어로즈 사랑 나눔** 히어로즈 선수단은 시즌을 마치면 곧바로 봉사활동에 참여한다. 팬들의 사랑에 보답하는 히어로즈만의 방식이다.
- 32 **WARM UP!** 모든 것에는 준비운동이 필요하다. 몸속의 나른한 게으름을 치우고, 에너지와 생기로 채워 넣는다.
- 36 **돌아온 카고 팬츠** 구시대적이라 여겨졌던 카고 팬츠가 돌아왔다. 낙낙한 주머니와 호방한 실루엣이 세련된 스타일링과 만나 우아함을 정의한다.
- 37 **매일 다른 운동화** 운동화를 대하는 어떤 강박에서 벗어나면 더욱 근사한 스타일을 마주할 수 있다.
- 38 **NEON COLOR** 밑줄 찍어 중요한 부분을 강조하던 형광색이 트렌드의 궤도에 올랐다. 선명함을 넘어 빛이 나는 듯한 착각이 든다.
- 40 **브라이트닝, 이제 쿠션으로** 봄에는 화사하게, 브라이트닝 쿠션을 선택한다.
- 44 **진화한 듀얼 자차** 단순히 자외선 차단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다. 스킨케어 효과까지 겸비한 자외선 차단제가 등장했다.
- 48 **5살 어려워지는 피부 관리법** 남자 피부도 관리하는 만큼 젊어진다. 훈남에서 아저씨로 '역변'하는 대신 5살 어려워지는 안티에이징 물을 제안한다.
- 50 **눈썹만 잘 다듬어도** 잘생긴 눈썹 하나가 외모를 좌우한다. 눈썹 미남으로 향하는 친절한 안내서.
- 52 **눈여겨 볼 식문화 트렌드** 가격보다는 내 입맛에 맞는 음식을 찾는 사람들. 간편하고 배부른 한 끼를 찾는 사람들, 하나를 먹어도 재밌거리를 찾는 사람들이 늘어난다.
- 54 **'인증샷'을 부르는 예쁜 디저트** 유희적인 자태로 눈부터 먼저 호감하게 만드는 예쁜 디저트 슝을 찾았다.
- 56 **주 52시간을 방해하는 자** 사무실이라는 공간만 벗어났다고 퇴근이 아니다. 주 52시간 근무제를 망치는 진짜 원인은 상황이 아닌 사람이다.
- 58 **개와 고양이를 위한 나라는 있다** 전 세계적으로 반려동물과 함께할 수 있는 공간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파리, 런던, 뉴욕, 암스테르담까지 반려동물을 환영하는 특별한 플레이스를 소개한다.
- 60 **지금, 당신이 지켜야 할 매너** 쉽게명 사회적으로 얽힌 우리에게 으리으리한 의미보다 더 중요한 기본적인 매너.

<SINGLES BASEBALL> PUBLISHER 이소영
 CO-PUBLISHER 신소희 EDITOR-IN-CHIEF 고경희
 PHOTOGRAPHER 정기락(GRM), 이기현(라운)
 발행처 THE BOOK COMPANY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226
 정기구독 02-3458-7123 편집문의 02-3458-7151 광고문의 02-3458-7295
 인쇄처 동아출판(주) 분해 출력 세빛그라픽

HAPPY TOGETHER

선수들과 함께 호흡하고
뛰면서 각자의 자리를 지키는
키움이어즈의 코칭 스태프들.
그들이 밝힌 2019년
새 시즌의 목표. 에디터 류창희

감독 장정석

3번째 시즌을 맞이한 장정석 감독.
조금씩 탄탄히 쌓아 올린 선수들과의 믿음과
호흡은 이제 최고치에 달했다.

작년 시즌과 비교해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 선수들과 스태프 모두 자신감을 많이 얻었다. 절반 이상이 어린 선수들이기 때문에 경험을 쌓는 것만으로 자신감이 붙었다. 그래서 올 시즌이 더 기대된다.

확실히 평균 연령대가 어려서 그런지 성장 속도가 빠르다. 물론이다. 성장을 겸손으로 대처해야 하는데 후시나 거만하게 굴까 봐 감독으로서 걱정이 된다. 프로는 성적이 좋으면 바로 연봉이 올라가고 금방 환경이 바뀌기 때문에 초심을 잃기 쉬운데, '거만하게 굴면 하늘에서 벌을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까지 든다. 재작년, 작년 그리고 올해 시작은 모두 같은 마음이다. 그래도 스프링 캠프 때 많은 대화를 나눴고, 베테랑 선수들이 후배들을 잘 이끌어주기 때문에 안심이다.

당연한 질문이지만 이번 시즌 목표는 무엇인가? 역시 우승인가? 항상 우승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표현하진 않았다. 스프링 캠프 때도 선수들에게 작년에 아쉬웠던 마음을 올해엔 달래보자는 말을 했을 뿐이다. 마음을 달래는 방법은 역시 한국 시리즈에 가는 것이라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평소 선수들과 대화가 많은 편인가? 전체 미팅은 자주 안 하고 개인 면담을 많이 한다. 면담이지만 방으로 불러서 대화하기보다는 운동장에서 왔다갔다 하면서 이야기한다. 감독이 방으로 부르면 선수는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기 때문에 그것 또한 스트레스가 된다. 되도록이면 운동장을 오가며 일부러 말을 붙이기도 하고, 지나가는 선수를 잡고서 이야기를 한다.

선수들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은 무엇인가? 팀을 생각하자는 말을 꾸준히 한다. 개인 기록을 높이다 보면 연봉도 올라가고 스타가 되니 좋지만, 팀 성적이 안 좋으면 개인 기록도 빛을 잃는다. 그런데 팀 성적이 유지되면 모두가 행복하다. 팀을 향한 배려를 머리가 아닌 가슴에 담으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쉬운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감독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자리가 아니라 잘 참는 자리인 것 같다. 정말 그렇다. 감독 생활을 오래 하진 않았지만 옆에서 오래 지켜본 선배로서 하고 싶은 말을 잘 참는 것도 지도자의 덕목이라는 생각이 든다. 내가 어떤 생각을 해서 구상하고 발표한 대로 경기를 해도 생각대로 되는 게 단 하나도 없다. 그게 가장 무섭다.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해도 정작 뛰는 건 선수들이다. 감독은 선수들이 신나게 경기할 수 있게끔 환경을 조성하는 사람이고,

그 환경이 좋다면 경기는 선수들이 알아서 잘 해줄 것이라 믿는다. 그런 믿음이 있어서 더 말을 아끼게 된다. 하지만 역시 하고 싶은 말을 참는 것이 가장 힘들다. 하하. 하도 말을 안 해서 목이 쉰 적도 있다.

그 방법이 선수들에겐 나를 믿고 기다려준다는 느낌이 들 것 같은데, 원래 공부하려고 했는데 공부하라고 하면 하기 싫어지지 않나. 야구도 똑같다. 내가 알려준 방법대로 하면 꼭 다치고, 자기 주도적으로 훈련하면 아무리 강도가 세도 부상이 없다. 선수 스스로 생각하고 계획을 세우니까 집중도가 확실히 높다.

감독과 선수간의 믿음, 그리고 타이밍이 정말 중요하겠다. 코칭 스태프에게도 항상 강조하는 것이 믿음이다. 좋은 조건을 만들어주면 선수들은 알아서 잘한다. 시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의 역할인데, 그 역할을 스태프들이 정말 잘 해주고 있다. 신뢰, 배려, 환경을 계속 강조한다. 욕심을 부리기 시작하면 끝이 없다. 예를 들면 타격 코치는 더 치게 하고 싶을 테고, 수비 코치는 더 연습시키고 싶겠지만 5분을 더 쓰면 상대가 5분을 못 쓰게 된다. 사소한 배려지만 이런 배려들이 쌓여서 좋은 환경이 만들어진다. 모두가 잘하고 있어서 감독이 제일 편한 위치인 것 같다.

이번 시즌, 가장 기대되는 선수는? 우선 요키시 선수에게 거는 기대가 크다. 그 자리가 워낙 중요해서 요키시 선수가 안정권에서 상위권 사이에 있어야 우리 팀이 편안하게 시즌을 치를 수 있다. 그래서 기대가 되고, 선수 스스로 책임감도 가져줬으면 한다.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만으로도 충분히 잘 해줄 것이라 믿는다.

세 번째 시즌을 맞았다. 스스로 어떤 감독이라고 생각하나. 정말 어려운 질문이다. 일단 좋은 감독은 아닌 것 같다. 하하. 감독은 모두가 좋아할 수도 없고, 모두가 미워할 수도 없는 자리다.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 책임감도 있어야 하고, 때로는 냉정함도 갖춰야 한다. 아직 좋은 감독은 아니지만 인정받을 수 있는 감독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분명하다. 스스로 평가하라고 하니 정말 잘 모르겠다. 집에선 확실히 좋은 아빠인데.





수석 코치 허문회

장정석 감독과 가장 많은 대화를 나누는 허문회 수석 코치. 그의 부드러운 리더십 덕분에 수평적인 팀 분위기가 유지된다.

스프링 캠프를 다녀온 이후 선수들에게 달라진 점이 있다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을 찾는 것 같다. 선수가 해야 할 것과 안 해야 할 것을 구분하게 된 것 같다. 감독님이 늘 말씀하시는 부분이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자는 것이다. 그런 환경이 잘 만들어졌고, 선수들도 스스로 생각하는 연습을 잘 해줬다.

개성이 강한 선수들과 훈련할 때 노하우가 있다면? 주입식 교육보다는 창의력을 키울 수 있도록 훈련을 짜려고 노력한다. 나는 주입식 교육을 받고 자랐지만 선수들은 그렇지 않은 세대다. 한 선수의 타격 폼이 안 좋을 때 직접적으로 '이렇게 해라고 하기보다는 스스로 터득하는 환경을 만들어 선수가 각 파트의 코치들과 생각하는 연습을 하도록 돕는다. 선수들 마음에 물음표가 생기고,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게 되면 결국 그 선수는 성장한다.

프로에서만 27년째 야구를 하고 있다. 그럼에도 아직 야구를 하는 원동력은 무엇인가? 히어로즈에 오기 전까지는 많이 지친 상태였다. 이곳에서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훈련을 접하게 되면서 '아, 잘하는 코치는 이미 이렇게 하고 있었구나'라는 걸 알게 됐다. 바로 옆에 있는 답을 못 찾고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했다. 쉬운 길을 돌아온 편이다.

이번 시즌을 기다린 팬들에게 한마디. 야구장에 많이 찾아와주셨으면 좋겠다. 관중석이 꽉 차면 확실히 선수들이 더 힘내서 플레이를 할 수 있고, 퍼포먼스도 달라진다.

수비 코치 흥원기

작년 기초군사훈련을 떠난 김하성 선수를 대신해 인상적인 대리 수상 소감을 남겼다.

이번 시즌 목표는? 선수들의 목표가 내 목표다. 우승팀은 하늘이 정해주는 것 같다. 운도 따라야 하고, 그저 매 게임 최선을 다할 뿐이다.

평균연령이 어린 구단이라 세대 차이가 느껴지진 않나? 나도 자식을 키우는 부모이고 딸이 선수들과 비슷한 연령대다. 딸에게 많은 힌트를 얻고 있지만 워낙 가족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하는 선수들이라 오히려 내 자식 같고, 조카 같을 때가 많다. 진심으로 대하면 선수들도 진심으로 내 말을 받아들인다.

스프링 캠프에서 박찬호 선수 섭외 담당이라고 들었다. 10년 넘게 자리를 만들고 있다. 투수는 공만 던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게임 운용 능력과 마음을 정리하는 스킬도 필요하다. 코치가 말해줄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 야구를 상징하는 박찬호 선수가 하는 말 한마디가 선수들에게는 완전히 다르게 와닿는다.

스스로 어떤 코치라고 생각하나? 색깔이 없는 코치. 특정한 어떤 것을 내세우고 싶지 않다. 선수들에게 내 스타일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선수의 장점을 빨리 파악해서 극대화할 수 있도록 돕고, 단점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코치의 역할이다. 내가 부각되거나 튀고 싶지 않다. 그라운드에서는 유니폼을 입고 달리는 선수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드라마에서 가장 큰 빛이 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나의 일이다.



투수 코치 브랜든 나이트

파히키보다는 맞서는, 승부사 기질을 가진 브랜든 나이트 투수 코치. 선수들과 대화하는 시간이 가장 즐겁다.

작년 시즌과 비교해 달라진 점은? 전력 면에서 선수들의 깊이가 굉장히 두터워졌다는 생각이 든다. 불펜에 선수들이 가세하면서 선수층이 두터워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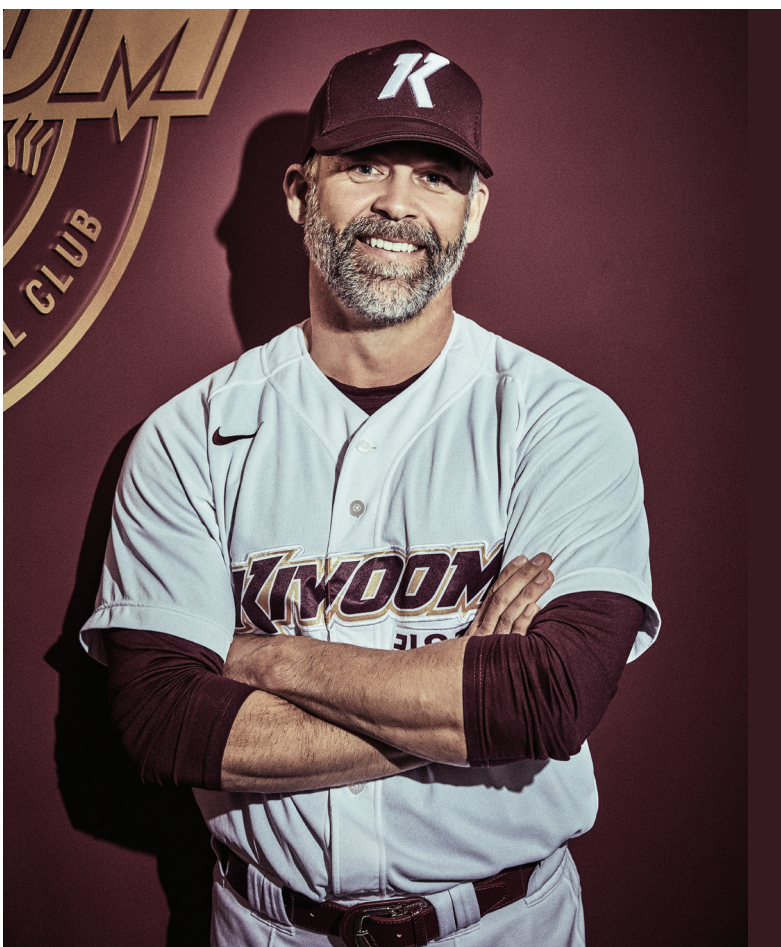
이번 시즌 목표는? 팀으로서 목표는 당연히 우승이다. 그것만큼 중요한 것은 선수들의 부상 방지다. 최대한 선수들에게 역할 분담을 잘 시켜서 특정 선수에게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큰 목표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선수들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은? 공격적으로 승부하는 것을 강조한다. 감독님과 나 모두 불넷으로 타자가 진루하는 것을 싫어한다. 타자와 승부할 때 도망가지 않고 정면으로 과감하게 승부하고, 타지들과 제대로 붙으라고 많이 말한다.

이번 시즌 가장 기대되는 선수는? 이승호 선수. 본인이 가진 역량을 이번 시즌에서 충분히 발휘했으면 한다. 재능이나 경기를 준비하는 마음가짐이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

야구의 매력은 뭐라고 생각하나? 선수들에게 일어나는 많은 상황을 대비해 연습을 하는데 막상 경기에 들어가면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긴다. 그 점이 가장 큰 매력이다. 마운드에 올라선 순간 '무조건 널 잡고 만다'라는 승부욕이 생길 때의 그 순간도 굉장히 짜릿하다.

이번 시즌을 기대하는 팬들에게 한마디. 작년 시즌이 많이 아쉽게 끝났지만 올해는 전력이 많이 보강됐다. 팬들의 성원이 더해지면 그 성원에 걸맞은 경기력으로 보답할 준비가 돼 있다. 응원석이 차도록 열심히 응원해주셨으면 한다.





타격 코치 강병식

부드러운 카리스마를 가진 강병식 타격 코치.
선수들의 긴장을 풀어주기 위해 누구보다 노력하는 코치다.

이번 시즌 목표는 무엇인가? 당연히 우승이다. 시작 전엔 모든 팀이 우승 후보다. 스포츠는 1등만 존재하고, 1등만 알아주기에 슬프지만 목표는 여전히 우승이다. 개인적으로는 내가 맡고 있는 파트의 선수들이 다른 구단에 비해 수치상 상위에 랭크됐으면 좋겠다.

훈련하면서 습관적으로 하는 말은? “어때?”라는 말을 많이 하게 된다. 대화를 하면서 “오늘 어때?” 혹은 “해보니까 어때?”라는 말을 많이 한다. 강압적으로 이렇게 하라고 말하는 것보다 선수들이 가진 잠재력을 깨우는 것에 집중한다. 코치는 지도자가 아니다. 말 그대로 코칭을 해주는 사람일 뿐, 답을 알고 있는 선생님은 아니다. 선수들과 편하게 대화를 하면서 팀을 주고 코칭을 하는 코치가 되고 싶다.

이번 시즌 가장 기대하는 선수는? 모두 보배 같은 선수들이라 한 명을 꼽기는 어렵지만 임병욱 선수가 개인적으로 시간과 돈을 투자해서 미국에서 타격 레슨을 받고 왔다. 남들이 하지 못하는 걸 본인 스스로 결정해서 한다는 것을 높게 평가하고 싶다.

이번 시즌을 기다린 팬들에게 한마디. 끝까지 남아서 응원하는 팬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다. 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운동장에서 열심히 땀을 흘릴 수 있다. 경기장에 많이 오셔서 격려와 사랑 보내주시면 고맙겠다. 꼭 찬 경기장에서 아무 소리가 안 들리면서 내 플레이에 집중하게 되는 순간이 있다. 그럴 때 선수는 전율이 온다.

불펜 코치 마정길

2010년 히어로즈에 이적해 작년 5월 현역에서 은퇴했다.
코치로서는 두 번째 시즌을 맞았다.

스프링 캠프 분위기는 어땠나? 캠프 전에 선수들이 개인적으로 몸을 정말 잘 만들어 왔다.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아픈 선수가 한 명도 없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이미 전망이 밝다. 투수들도 다 좋아서 행복한 고민을 했다.

코치로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선수들의 마음을 이끌어내는 것. 선수들이 에너지를 뽐으면서 직접 질문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싶다. 게임이나 티칭이 끝난 후 해주고 싶은 말은 많지만 참는다. 기다리다 보면 스스로에게 만족하지 못한 선수들이 자연스럽게 다가온다. 선수 시절과는 확실히 다르다. 야구는 선수가 하는 것이고 코치는 뒤에서 커버를 해주면 된다. 선수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 코치로서 가장 중요한 덕목 아닐까.

‘독수리 오형제’라는 팬들을 유난히 아낀다고 들었다 별명은 내가 지었다. 선수 시절부터 지금까지 서포트해준다. 말 한 마디라도 더 하려고 노력하고, 작은 선물을 드린 적도 있다. 독수리 오형제가 꼽는 마정길 코치의 매력 포인트는? 웃음거리가 될 것 같은데, 하하. 잘 생기지도 않았는데 잘생겼다는 말을 항상 해주신다. 내가 내 얼굴을 아는데도 그런 말을 들으면 민망하면서도 나름 기분 괜찮다.

이번 시즌 가장 기대하는 선수는? 올 시즌 첫 선발에 합류한 안우진, 이승호 선수. 첫 단추를 잘 꿰야 마지막까지 승승장구할 수 있기 때문에 잘 해줬으면 한다.



외야 주루코치 오운

2019 시즌 1군 코치로 합류했다.
선수들의 가장 기쁜 순간에 함께하는 포지션이다.

선수들 평균 연령이 어리는데, 다른 구단과 다른 점이 있다면? 일단 체력적으로 지지치 않는다. 틀에 박히지 않은 선수들이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얼마나 성장할지 가능성이 안 된다. 그만큼 가능성이 무한하다.

선수들에게 특별히 바라는 점은 무엇인가? 항상 강조하는 부분이 현재에 집중하지는 것이다. 현재에 집중해야 앞으로 좋아질 가능성이 생기고 자기 플레이를 할 수 있다. 야구는 변수가 많은 종목이라 멘탈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흐트러진다. 대부분 문제점을 기술적인 것에서 찾으려고 하는데, 많은 실수는 현재에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긴다. 타자는 치는 것에 집중하고, 주자는 뛰는 것에 집중하다 보면 실수가 줄어든다.

이번 시즌 가장 기대하는 선수는? 박정음, 허정협 선수가 잘 했으면 한다. 지금처럼 중요한 시기에 고참들이 잘 돼서 중심을 잡아주면 좋을 것 같다.

코치로서 내가 가진 최대 강점은? 잘 참는 것. 말하면 편한데 잔소리로 느껴지면 멘탈이 흔들릴 수 있어서 먼저 물어보기 전까지 열심히 기다리고 있다. 기다리고 말을 아끼는 것은 생각보다 힘든 일이다.

먼저 조언을 구하는 선수들도 많나? 그렇다. 스스로 생각을 하고 먼저 조언을 구하는 선수들은 발전도 훨씬 빠르다. 멘탈은 좋아지고 나빠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멘탈 유지를 돕는 것이 코치의 역할이다.



작전 주루 코치 조재영

순간적인 판단력을 필요로 하는 포지션.
결정하고 실행하기까지 단호함과 날렵함이 고루 필요하다.

팀 분위기가 매우 수평적인 것 같다. 선수가 위축되지 않게 분위기를 만든다. 선수가 위축 되면 기량을 제대로 발휘 못하는 경우가 많다. 수직적인 분위기로는 좋은 팀이 될 수 없다. 가장 기대하는 선수가 있다면? 서건창 선수. 작년에 부상을 당했는데 어린 선수들이 잘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변화가 생긴 것 같다. 도루가 워낙 위험 부담이 커서 자제하는 추세지만 뛰어야 하는 선수가 분명 있다. 서건창 선수가 선두에서 김하성, 김은성, 김규민 선수처럼 어린 선수들이 잠재력을 터뜨릴 수 있도록 선봉자 역할을 해줄 것이라 생각한다. 훈련할 때 선수들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은? 편안하게. 가장 어려운 말이지만 많이 하게 된다. 주루에서는 정말 짧은 순간에 갈지 말지를 결정해야 한다. 내가 어떻게 움직일지 미리 생각하고, 나와 시그널을 항상 주고받는다. 코치가 일방적으로 시그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선수들이 먼저 스스로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나에게 시그널을 주도록 한다. 본인이 생각한 대로 움직이는 것과 내가 준 사인대로 움직이는 것은 분명히 다르다. 플레이는 선수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목표가 같아도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 이번 시즌을 맞이하는 각오는? 작년은 모두에게 아쉬운 시즌이었다. 선수들이 지금 같은 마음으로만 경기에 임한다면 모두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마음속에만 간직한 개인적인 목표가 달성되면 결국엔 우승도 가능하리라 생각한다.

배터리 코치 박도현

키움히어로즈가 포수 왕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박도현 배터리 코치의 역할이 컸다.

이번 시즌 목표는? 팀 목표는 물론 우승이다. 한국시리즈에 갈 수 있게끔 선수들과 코칭 스태프 모두 큰 목표를 가지고 있다. 개인적인 목표는 포수들이 잘 해줬으면 좋겠다. 아무래도 애정이 좀 더 간다. 포수는 특정 포지션이라 멤버가 많지도 않다. 정에 멤버라 더 애정이 갈 수밖에 없다. 훈련할 때 선수들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은? 잘하려고 하지 말고, 잘하는 걸 해라. 선수들도 본인이 잘하는 걸 찾는 게 빠르다고 생각한다. 이번 시즌에 선수들에게 바라는 것은? 부상 없이 한 시즌 무사히, 좋은 성적 내는 것. 항상 선수들에게 하는 말이 마지막에 웃자는 것이다. 가장 기대되는 선수는? 주효상 선수와 이지영 선수. 이지영 선수는 삼성에서 올해 우리팀으로 왔는데 낯선 환경에서 힘들었을 텐데 적응을 잘 해줘서 고맙다. 주효상 선수는 신인 때부터 봐왔는데 한 해 한 해 지나면서 점점 마음가짐이 달라지고 성장하는 모습이 보인다. 오래 지켜본 선수가 달라지는 모습을 보면 뿌듯하다. 스스로 어떤 코치라고 생각하나. 부족하고 배고픈 코치, 하하. 지금 어떤 코치라고 말하긴 어렵지만 이런 코치가 되고 싶다는 바람은 있다. 내가 다가가기보다는 다가오게끔 하는 코치가 되고 싶다. 선수들이 다가와서 이야기할 수 있는, 말이 통하는 코치가 되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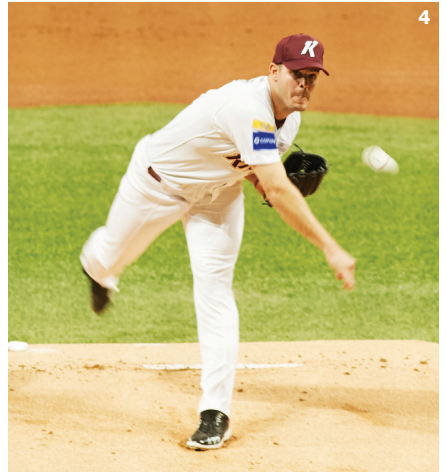
트레이닝 코치 이건우

올 시즌 처음 트레이너에서 트레이닝 코치가 됐다.
선수들에게 따뜻한 형과 같은 존재인 이건우 트레이닝 코치.

작년 시즌과 달라진 점이 있다면? 확실히 멘탈이 좋아졌다. 선수들이 스스로 잘 안 되는 부분을 깨닫고, 남들보다 일찍 와서 연습하기도 한다. 이번 시즌 가장 기대하는 선수는? 다 잘할 것 같은데 굳이 꼽자면 주효상 선수. 어릴 때의 나와 닮았다는 생각이 든다. 재능은 있는데 불평 불만도 많고 남들과 비교하면서 힘들어했던 시기가 있었는데, 미국에서 오자마자 행동이나 운동하는 태도 등이 많이 달라졌다. 선수들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은? “괜찮아, 괜찮아.” 선수는 몸으로 말하는 직업이라 불안감이 많을 수밖에 없다. 끊임없이 선수들에게 “괜찮아, 한번 해보자”라는 말을 많이 하게 된다. 우선 신뢰가 쌓여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가장 많이 노력한다. 아직 코치 생활을 한 지 1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우선 경험을 많이 쌓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 열 번 중에 아홉 번 잘하다가 한 번 때문에 토라질 수 있는 게 선수들 멘탈 관리다. 코치로서 나만의 강점은 무엇인가? 부족한 점으로 경험을 꼽았지만 강점도 경험인 것 같다. 히어로즈에서 10년 동안 있으면서 한 구단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거의 해봤다. 1군에만 있었다면 2군 친구들을 이해하기 어려웠을 수도 있지만, 모든 선수들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선수들과 함께 호흡하는 것이 재미있다. 코치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은? 판단력. 나에게 지금 가장 부족한 면이기도 하다. 경험을 많이 쌓아서 선수들의 결정에 옳은 판단을 도와줄 수 있는 코치가 되고 싶다.

영웅의 출사표, 홈 개막전

3월 29일 고척돔에서 열린 히어로즈의 홈 개막전에서 만난 선수와 팬들. 에디터 김지덕



PLAYER

홈 개막전에서 SK를 상대로 최선을 다해 경기하고 있는 선수들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다.

1 '포수 왕국'이라 불리는 히어로즈의 포수 주효상. 개막전에서는 도루 저지율 35.7%를 기록하며 인상적인 경기를 마쳤다. 2 3회 초, 2-0으로 선두를 지키고 있는 모습. 3 1회 말 희생플라이를 날리며 히어로즈가 2-0 리드를 잡을 수 있는 플레이를 펼친 송성문. 4 홈 개막전 선발투수로 등판해 뛰어난 위기 관리 능력을 보여준 제이크 브리검. 5 위기의 순간을 넘긴 뒤 서로 독려하며 파이팅을 다지고 있는 히어로즈의 선수들.



CHEERING SQUAD

남다른 퍼포먼스와 구호, 응원가로 선수들의 사기를 높여주는 히어로즈 응원단의 모습을 담았다.

1, 6 목소리 크고 활력 넘치기로 유명한 키움히어로즈의 응원단. 새로운 응원가에 맞춰 팬들과 함께 힘차게 응원을 펼치고 있다. 2 열정 다해 키움히어로즈를 응원하겠다는 각오를 드러낸 김하나 치어리더. 경기 내내 팬들과 함께 뜨거운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3 최강의 인기를 자랑하는 히어로즈의 마스코트 똘똘이와 탁들이. 경기 내내 관중석을 지키는 것은 물론, 팬들과 사진을 찍고 하이파이브를 하며 열정적인 팬 서비스를 선보였다. 4 고척돔의 형상을 모티브로 한 돔형상의 헤드를 가진 히어로즈의 수호 로봇 똘똘이. 금방이라도 미사일을 발사할 것 같은 포즈로 꼬마 팬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5 이번 시즌 '무조건 우승을 바라보며 미친 듯 응원'을 펼쳐겠다는 포부를 밝힌 김정석 응원단장.





FAN

응원도 1등, 먹방도 1등 뭐든 잘하는 히어로즈의 열혈 팬들.

1 이경원, 김명민, 백소희, 최혜선 다양한 먹방을 즐기며 힘찬 응원을 선보인 네 명의 친구들. 2 안소윤 이정후의 이름과 넘버가 새겨진 레플리카를 들고 엄마와 함께 경기장을 찾은 팬. 우렁찬 목소리로 응원장을 지배했다. 3 조준상, 조승현 새로운 유니폼과 영웅의 검 응원막대를 들고 경기장을 찾은 부녀. 4 이영진, 이태후, 이태양, 신정선 리틀야구단에서 각각 유격수, 중견수를 맡고 있는 두 아들과 함께 경기장을 찾은 가족. 레플리카에 데님 팬츠로 패밀리의 룩까지 맞췄다. 5 오연주, 김민정, 박지연, 허은진, 양은홍, 조은아, 이수연 응원 메시지를 담은 헤어밴드를 똑같이 맞추고 경기장을 찾은 팬들의 모습. 히어로즈의 홈런을 기원하며 홈런볼까지 아무지게 챙겼다. 6 박병호 선수의 레플리카를 입은 꼬마 팬들. 등 뒤에 선수들의 사인이 가득하다. 7 김선우, 김혜원 야구장 직관을 나섰다면 인증샷을 빼놓을 수도 없다.



GOODS

키움 로고로 새롭게 바뀐 응원용품들.

1, 2 새롭게 출시된 레플리카. 홈 경기 유니폼은 흰 바탕에 버건디 로고, 원정 경기 유니폼은 버건디 바탕에 흰 로고로 이루어져 있다. 3 야구장 직관 필수품인 비닐 막대. 질은 버건디 컬러를 새롭게 입고 검 형태로 제작되어 팀의 정체성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다. 4 김재현 히어로즈의 어린이 회원까지 가입한 열혈 팬. 이미 새로운 응원용품도 모두 구입했다. 5 새로운 응원용품인 영웅시리즈. 선수들을 응원하는 팬 역시 또 한 명의 영웅이라는 콘셉트로 영웅을 상징하는 영웅망토와 영웅의 검 응원막대로 구성됐다. 6 홈 개막을 기념하며 다양한 이벤트를 펼친 히어로즈. 선착순 500명에게는 지난 시즌 유니폼을 새로운 유니폼으로 교환해주는 이벤트를 준비하고, 선착순 3000명에게는 응원막대 영웅의 검을 증정했다.





BETTER THAN TODAY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꿈꾸는 건 모두가 마찬가지다. 히어로즈 선수들도
간절한 마음으로 더 나은 내일을 바란다. 저절로 좋은 날이 오지는 않는다는 것을
히어로즈 선수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Written by Kim Si Hyun, Kim Su Jeong Photographed by Maeng Min Hwa

기운 센 박병호

지난 시즌을 마친 후, 히어로즈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하지만 '국민 타자' 박병호는 동요하지 않는다. "그러한 변화가 실력을 뒤흔들지는 않아요. 선수들은 원래 실력대로, 혹은 그 이상으로 잘 뛰고 있죠." 우승에 대한 변수는 오히려 '타순'이다. 당연하다는 듯 4번 타자였던 박병호는 시범경기 동안 2번 혹은 3번 타자로 나섰다. 박병호가 있던 자리는 주로 서건창, 김하성 선수가 채웠다. "적당한 긴장과 함께 이 생소함을 즐기고 있어요. 조금 이르긴 하지만 우승할 수 있을 거란 자신감이 있어요. 예감도 무척 좋죠." 자신감의 근거는 잘 자란 후배들에 대한 신뢰에서 찾을 수 있다. "히어로즈에는 유독 지난 시즌에 처음으로 풀타임을 뒀던 선수가 많아요. 송성문, 김혜성, 김규민 등 많은 후배들이 올해에는 첫 시즌의 긴장을 지우고 100%의 기량을 펼칠 거라 믿습니다. 그들의 부족한 부분은 저 같은 선배들이 꼭 채울 거예요." 장난기를 쏙 뺀 단호한 대답은 대화의 끝까지 이어졌다. "시범경기 수가 부족한 것 같아 조금 아쉬운데, 이때의 성적보다 과정과 경기력에 집중해 진짜 시즌이 시작되면 좋은 결과를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야 고참으로서 할 말이 생기겠죠." 박병호의 긍정의 에너지가 사그라들지 않는 한 히어로즈는 내내 희망으로 뜨거울 것이다.

변함없는 승부사 서건창

'히어로즈 YB와 OB의 딱 중간'. 서건창은 나이로 보나, 선수 경력으로 보나 줄곧 팀의 평균점을 지켜왔다. 핵심 타자로서 짊어진 의무에도 변함이 없다. 팬들은 매번 결정적인 한 방을 보여주는 그를 올해에도 '서 교수'라고 부를 것이다. "교수라니, 고졸 학력인 제게 얼마나 과분한 별명인가요, 여전히 그 별명을 가질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해하며 열심히 뛰어야 합니다." 경기 종료 후 가장 늦게, 조금 일찍 퇴근해봤자 뒤에서 2~3번째로 경기장을 빠져나오는 선수도 여전히 서건창이다. 그렇다 보니 한 번이라도 그의 모습을 더 보려는 팬들의 귀가 시각도 늘었다. "선수 대기실에서 특별한 일이 있는 건 아니고, 원래 행동이 남들보다 굵은 편이에요. 서두르려고 해본 적도 있지만 사람은 역시 쉽게 안 변하더라고요." 김상수 선수에게 주장 자리를 넘겨준 것과 2~4번 사이에서 때마다 바뀌는 타순은 그에게 새롭다. 그렇지만 덤덤하다. "어렸을 땐 작은 변화에도 예민했었는데 이젠 그런 시기가 지났죠. 환경을 의식하기보다 뭘 잘하고 무엇이 부족한지 스스로 잘 아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건창은 우승에 대한 속내를 밝힐 때 가장 결연하다. "4강, 5강을 겨우 바라보던 과거에는 실제로 전력이 부족했어요. 하지만 '히어로즈는 당연히 3강'이라는 지금의 평가에는 일부러라도 겸손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실력이 훨씬 성장했으니까요." 양보하기보다 3강의 중심에 히어로즈가 우뚝 서는 모습을 더욱 분명하게 그린다. "예열은 진작에 끝났어요. 이제 팔팔 끓어 넘치기만 하면 돼요. 지금은 99℃입니다." 잇단 부상에 주춤해야 했던 과거는 일찌감치 뒤로 넘기고, 서건창은 팬들의 응원을 등에 업고 힘껏 배트를 휘두를 준비를 마쳤다.



연결고리 역할의 캡틴 김상수

2018년 10월 19일, 히어로즈와 이글스의 준플레이오프 1차전. 3-2의 1점차 힘든 리드를 지키던 히어로즈가 8회에 1사1, 2루 상황에서 김상수 선수가 마운드에 올랐다. 그는 1,2이닝을 마법처럼 무실점으로 막아내며 세이브를 기록했다. 다음 날에도 2개의 삼진을 곁들여 1이닝을 막으며 히어로즈의 2차 승리를 마무리했다. “마무리 투수라면 뛰어난 구위로 타자를 억박지르고 깔끔하게 경기를 마무리하는 게 중요하죠. 지난해까지는 삼진을 많이 잡는 편이었지만 올해는 맞춰 잡는 쪽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가 2019년 시즌 플랜을 이야기한다. “뛰어난 투수라면 공 하나로 아웃 카운트 하나를 잡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적은 투구로 경기를 마무리할 수 있어야 다음 날에도 경기에서 나서야 할 때 문제가 없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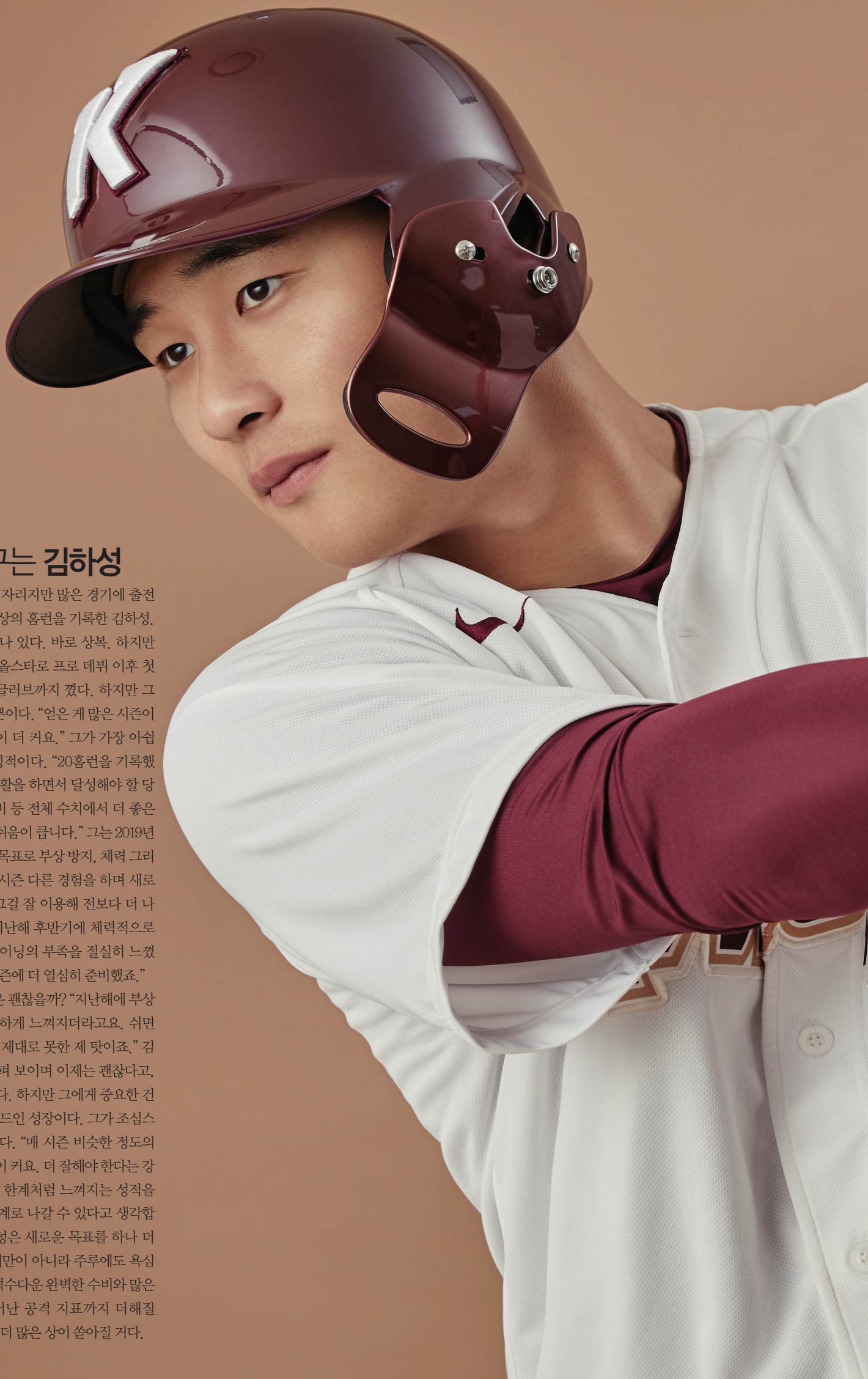
그가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팀워크다. 야구 경기의 승리는 투수만 잘 던진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힘든 시기를 극복하는 비결 역시 모든 선수와 코칭 스태프가 하나 된 마음으로 자기 역할 이상을 하는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김상수는 올해부터 히어로즈의 새 주장이다. 보통 주장은 야수나 선발 투수가 맡는다. 이례적인 선택이다. 장정석 감독은 “모두가 원했다”며 선임 배경을 밝혔다. 히어로즈의 새 캡틴은 “평소에도 선수나 코칭 스태프와 대화를 많이 해요. 그런 모습이 좋게 비춰진 것 같아요”라고 비결을 말한다. 그리고 이어 “선수 김상수는 물론 인간 김상수로 좋은 경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라며 자부심을 비친다. 주장이 됐지만 그의 목표는 14년차 베테랑답게 오히려 단순하다. “주장으로서 선수들이 편안한 분위기에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하고 싶어요. 그리고 저 역시 선수들이 믿을 수 있는 주장이자 투수가 되고 싶습니다.” 싱글벙글 웃으며 인터뷰를 하던 그가 어느새 단단한 자세로 고쳐앉아 있다.





플러스의 역할 이지영

히어로즈 유니폼을 입은 날, 이지영은 상대 팀의 투수로 만났던 히어로즈의 선수들을 하나씩 떠올렸다고 말한다. “좀 설레더라고요. 상대 팀에서 좋은 투수라고 생각했던 이들의 공을 직접 받을 수 있잖아요.” 그가 눈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웃으며 말한다. 베테랑 포수의 표정에서는 적응의 어려움이나 두려움이 비치지 않는다. “장난치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인지 어린 선수들이 어려워하지 않고 살갑게 먼저 다가오더라고요. 덕분에 적응도 쉽게 할 수 있었죠.” 그는 같은 포지션의 주효상, 그의 미트를 향해 공을 던지는 안우진 선수와는 10살 이상의 차이가 있다. 하지만 그는 무작정 고참 대접만 받으려는 생각이 없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적응’뿐이다. “첫 시즌인 만큼 빠르게 적응하고 우리 팀의 좋은 투수들에 대해서 잘 아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에겐 이미 가장 좋은 무기가 있다. KBO 리그 전체에서 인정받는 수비력이다. 그는 여기에 타격까지 더할 계획이다. “히어로즈의 뛰어난 타자들을 보니까 저도 욕심이 나더라고요. 제가 갑자기 홈런 타자가 될 수는 없겠지만 더 좋은 타구를 날릴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효상을 포함한 후배 포수들을 이끄는 것 역시 중요한 과제다. “팀에 보탬이 되는 선수, 플러스가 되는 역할을 하고 싶어요. 히어로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에게 슬쩍 이번 시즌이 끝나면 FA 계약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FA를 앞둔 선수는 각오가 남다르니까. “매 시즌을 FA 직전 시즌이라고 생각하며 시작해요. 올해도 마찬가지죠. 좋은 계약은 좋은 성적에 따르는 결과일 뿐입니다. 제게는 그냥 지금 시즌이 중요해요.” 듣직한 안방 마님의 이야기를 듣고 환호성을 지를 팬들의 모습이 벌써부터 그려진다.



성장을 꿈꾸는 김하성

체력 소모가 큰 유격수 자리지만 많은 경기에 출전하고 3년 연속 20개 이상의 홈런을 기록한 김하성. 그에게도 부족한 게 하나 있다. 바로 상복. 하지만 그는 지난해에 미스터 올스타로 프로 데뷔 이후 첫 상을 움켜쥐더니 골든글러브까지 졌다. 하지만 그에게 2018년은 아쉬움뿐이다. “열은 게 많은 시즌이었지만 오히려 아쉬움이 더 커요.” 그가 가장 아쉽게 생각하는 건 역시 성적이다. “20홈런을 기록했지만 그건 제가 선수 생활을 하면서 달성해야 할 당연한 겁니다. 공격, 수비 등 전체 수치에서 더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한 아쉬움이 큼니다.” 그는 2019년 시즌에 꼭 이루고 싶은 목표로 부상방지, 체력 그리고 성장을 꼽는다. “매 시즌 다른 경험을 하며 새로운 걸 배우고 있어요. 그걸 잘 이용해 전보다 더 나은 성적을 거둬야죠. 지난해 후반기에 체력적으로 힘이 들 때 웨이트트레이닝의 부족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즌에 더 열심히 준비했죠.” 지난해에 다친 손바닥은 괜찮을까? “지난해에 부상을 당해보니까 더 절실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쉬면 제 손해입니다. 관리를 제대로 못한 제 탓이죠.” 김하성이 손바닥을 활짝 펴 보이며 이제는 괜찮다고, 아무 문제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에게 중요한 건 따로 있다. 마지막 키워드인 성장이다. 그가 조심스럽게 오랜 고민을 말한다. “매 시즌 비슷한 정도의 성적을 내다 보니 부담이 커요. 더 잘해야 한다는 압박에 시달립니다. 제게 한계처럼 느껴지는 성적을 빨리 극복해야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9년의 김하성은 새로운 목표를 하나 더 세웠다. “타격이나 수비만이 아니라 주루에도 욕심을 내려고요.” 주전 유격수다운 완벽한 수비와 많은 경기 출장 그리고 빼어난 공격 지표까지 더해질 2019년, 올해는 그에게 더 많은 상이 쏟아질 거다.

될성부른 나무 이정후

2017년 신인왕, 2018년 외야수 부문 골든글러브, '바람의 손자'라 불리는 이정후는 프로선수로 선발된 후 화려한 역사를 썼다. 그리고 어느덧 프로 3년 차. 그 숫자에 깃든 무게를 이정후는 냉정하게 바라보고 있다. "이 연차쯤이 되면 실력을 숫자로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봐요. '박병호는 당연히 홈런 50개' 같은 거죠. 저도 올해는 그런 멋진 숫자를 갖고 싶습니다." 딱으로부터 남다른 이정후는 아버지인 이종범에게 물려받은 유전자에만 의존하지 않는다. 지난해 실전에서 자신도 모르게 박병호식 타법으로 안타를 만들었던 순발력은 꾸준한 연습의 결과였다. "특이하게 선배들의 타법을 잘 흉내내요. 선배들께 직접 묻기보다 평소 유심히 관찰해두었다가 타격 훈련을 할 때 슬쩍 그 타법을 시도해보는 편입니다." 이번 시즌에는 그 누구보다 부지런히 준비도 했다. 어깨를 다쳐서 다소 주춤했던 지난 시즌 후반기를 기억하기 때문이다. "경기장에 2~3시간 정도 일찍 와요. 미리 어깨 근육을 풀려고요. 110~120경기쯤 뛰고 나면 지치기 마련인데, 끝까지 전력을 쏟으려면 평소 몸을 잘 써야겠더라고요." 야구 얘기에 내내 심각했지만, 반려견 '까오'를 생각할 땐 천진하게 웃는다. "시즌이 끝난 이후에도 개인 훈련을 한답시고 까오랑 자주 놀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 시즌을 마친 후에는 더 잘해주려고요. 사진도 자주 찍고요." 선수로서 이정후의 목표는 여전히 아버지의 실력을 뛰어넘는 것. '히어로즈의 듬직한 1번 타자'라는 작금의 칭찬에 배부를 리가 없는 이정후다.





유쾌한 대들보 이보근

이보근은 가히 '히어로즈 맨'이라 불릴 만하다. 2005년 히어로즈의 전신인 현대 유니콘스에 입단한 뒤 한 번도 이적하지 않은 이보근은 올 초 FA 계약도 히어로즈와 마무리했다. "선수 생활의 목표는 개인적인 기록이 아니에요. 목표는 팀의 우승이죠. 그치만 우승이란 건 결국 투쟁을 열어봐야..." 우승이란 단어를 고를 때 그가 이토록 조심스러워하는 이유는 지난 플레이오프의 상처 때문이다. "작년 플레이오프 5차전 때 보았던 신재영 선수의 눈물이 잊혀지질 않아요. 올가을엔 그런 기억을 안 만들고 싶습니다." 다행히 이보근이 포함된 철벽 불펜진은 조상우의 합류로 객관적인 상승선을 그리고 있다. "저와 주원이 형 같은 고참들이 지금처럼 불펜 라인을 잘 받쳐준다면..." 자주 말끝을 흐렸지만, 팀내 분위기 메이커답게 이보근은 자주 호쾌하게 웃었다. 농담도 곧잘 했다. "요즘 '혼밥'이 늘었어요. 괜히 한참 어린 후배들을 긴장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요. 저랑 밥을 먹으면 얼마나 밥이 안 넘어가겠어요. 그죠?" 만일 올해 우승하게 된다면 꼭 하고 싶은 일은 '세리머니'다. "우승 그 자체에 욕심이 날 뿐, 그 뒤의 일은 생각하지 않을래요. 우승 팀에게만 허락된 자축 세리머니, 오직 그것만을 그리며... 하지만 역시 투쟁을 열어봐야겠죠. 설레발치지 않을래요. 그러다 혼이 나는 거거든요." 그가 다시 유쾌하게 웃는다. 아무래도 그의 호쾌한 웃음처럼 히어로즈의 해피엔딩이 그려질 것 같다.



현재 진행형의 오주원

오주원은 다른 때보다 시즌 준비를 일찍 시작했다. 2004년에 데뷔해 어느덧 KBO 리그에서만 열네 번째 시즌을 맞이하는 베테랑이지만 루틴에 변화를 준 셈이다. 프로선수에게는 꽤 드문 일이다. “지난 시즌에는 페이스가 좀 늦게 올라오더라고요. 올해 더 나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 저도 조금씩 바뀔 필요가 있죠.” 그가 별것 아닌란 표정으로 태연하게 이야기를 한다.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팀이 필요한 순간이면 마운드에 올라 공을 던지던 그는 지난해까지 480경기에 출전을 했다. 500경기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 “이번 시즌에 꼭 달성하고 싶은 목표예요. 저에겐 의미가 크죠. 꾸준히 그리고 열심히 뛰었다는 증거잖아요.” 장밋빛 미래를 생각하면 슬쩍 미소를 보일 법도 한데 그의 표정에 변화가 없다. 첫 번째 경기와 지난해 마지막 출전 중 어느 쪽이 더 기억에 남는지 물어도 그의 대답은 여전히 단호하다. “마지막 경기는 생각 안 해요. 전 아직 진행형이니까요.” 대신 그는 스무 살의 나이에 처음 올랐던 프로 리그의 마운드를 떠올린다. “아무것도 모를 때 등판한 첫 경기가 가장 기억에 남아요.” 2004년 4월 4일, 그는 구원 투수로 나서 아웃 카운트 하나를 잡는 동안 볼넷 하나와 1자책점을 기록했다. 그리고 그는 우승 반지와 함께 신인상을 받았다. 500경기 출전이 여전히 마지막은 아니지만 그가 머릿속으로 그리는 팀과 개인의 성적은 마찬가지다. “경기에 계속 나서다 보면 성적은 자연스럽게 따라와요. 팀 성적도 마찬가지죠. 게다가 올해는 더 막강한 불펜 투수진까지 갖췄습니다.” 이제야 그가 슬쩍 자신감이 스민 미소를 건넨다. 그가 특히 기대를 갖고 보는 후배 투수는 양현이다.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번 시즌에는 자기 역량을 제대로 발휘할 거 같습니다.” 히어로즈의 고참 선수답게 듬직하게 후배를 챙기는 모습을 보니 야구는 혼자 하는 경기가 아니라는 뻔한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떠오른다. 오주원의 지난 480경기가 그랬던 것처럼.



승부사의 기질 최원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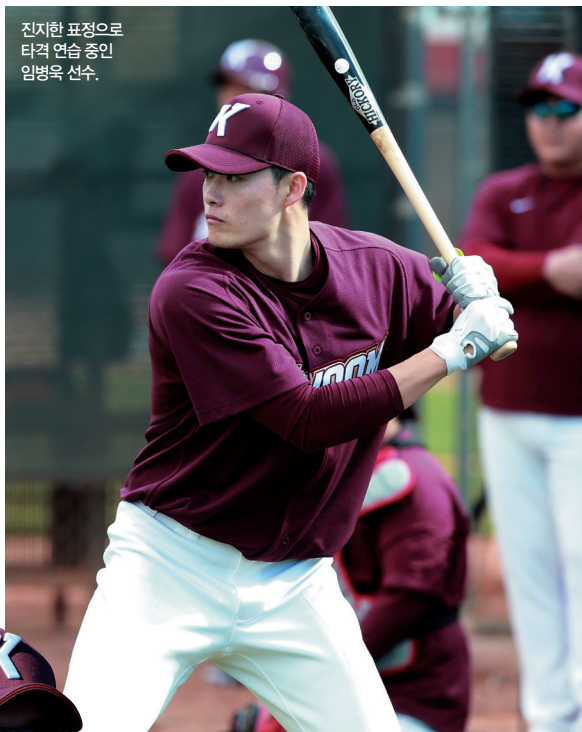
최원태는 히어로즈 1군 무대에서 이제 겨우 세 시즌을 보냈다. 하지만 그는 히어로즈에서 2년 연속 두 자릿수 승리를 기록한 유일한 투수다. 지난해에는 2017년보다 2승 더 많은 13승을 기록했다. 하지만 그는 2019년 시즌을 앞두고 자신의 기록이나 팀의 승리 대신 건강을 이야기한다. “시즌 끝까지 부상 없이 선발 투수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싶어요. 30경기 이상 출전이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매 시즌 부상을 경험한 탓이다. 그래서 장정석 감독은 시즌이 시작하기도 전에 최원태 선수를 집중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잘 던지던 경기에서 정해진 이닝이나 투구수를 채운 탓에 마운드에서 내려와야 하면 섭섭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그런 배려가 무척 감사합니다. 제겐 은인 같은 분이예요.” 장 감독은 그에게 선발 투수의 역할을 맡긴 장본인이다. 물론 그 역시 몸 관리에 더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 “이번 시즌은 보강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준비하고 있어요.” 그가 표정에 ‘문제없다’는 메시지를 담아 건넨다. 그리고 야구선수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승부사 본능을 드러낸다. “90개 이하의 공으로 6이닝을 완벽하게 마치는 게 목표입니다.” 초롱초롱하게만 보이던 그의 눈동자에 무서운 기운이 살짝 스민다. 왜 히어로즈 팬들이 그에게 정민태 투수를 잇는 ‘포스트 20’을 떠올리는지 단박에 알 수 있는 기운이다. 단지 레전드 선수의 등 번호를 물려받았거나 어린 나이에도 뛰어난 활약을 보이기 때문만은 아니다(사실 20번은 어릴 때부터 달던 번호라고). 최원태 선수에게는 에이스 투수가 가져야 할 실력과 함께 무서운 투지가 함께 자리하고 있다. 뭔가 특별한 투지 말이다.

경기장을 돌며 슬슬 몸을 푸는 선수들의 모습.



2019년 히어로즈의 스프링 캠프에 다녀오다

프로야구 코칭 스태프와 선수들은 시즌을 준비하기 위해 긴 전지훈련을 떠난다. 히어로즈도 예외가 아니다. 이들의 스프링 캠프 모습을 취재했다. 에디터 김우현



진지한 표정으로 타격 연습 중인 임병욱 선수.



1루 수비 훈련 중인 선수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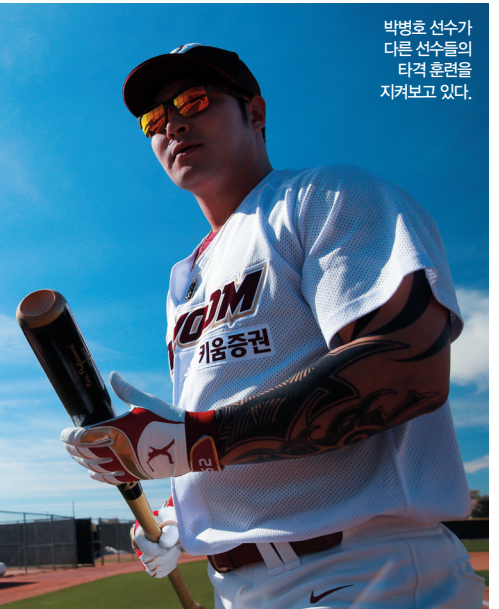


훈련 중에 장비를 점검하고 있는 이지영 포수.



코칭 스태프에게 훈련 내용을 브리핑 받고 있는 선수들.

승구 훈련 중인 배현호 선수의 모습.



박병호 선수가 다른 선수들의 타격 훈련을 지켜보고 있다.



주루 훈련 중인 김해성 선수.



워밍업중인 히어로즈 선수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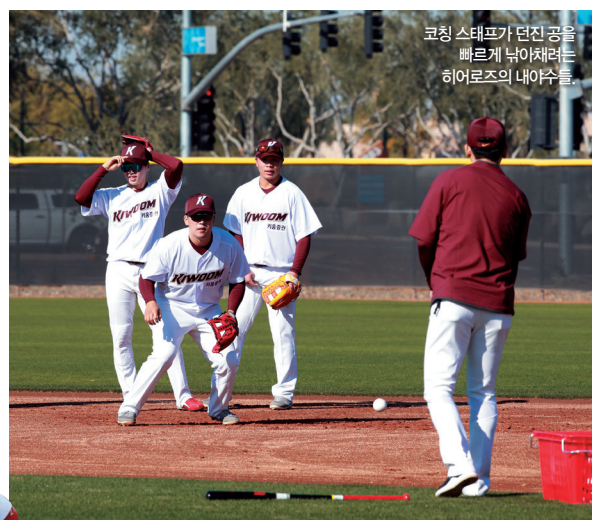
히어로즈의 전지훈련지는 미국 애리조나. 맑고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는 덕분에 선수들이 컨디션을 올리기 최적의 환경을 갖추고 있고, 2차 전지훈련을 하는 투산에는 한국은 물론 미국, 멕시코 팀까지 전지훈련을 와 연습경기를 치르기도 좋다. 올해는 모두 58명의 선수단이 애리조나 피오리아로 향했다. 1월 30일, 인천공항에 모인 선수들은 간만에 함께 호흡을 맞출 수 있다는 기대감 덕분에 모두 들뜬 표정을 숨기지 않았다. 물론 두 달도 남지 않은 KBO 리그에 대한 긴장감도 비쳤다. 전지훈련은 단순히 날씨가 좋은 곳에서 훈련을 한다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전지훈련의 성과가 한 해 성적을 좌우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6개월 정도의 긴 시즌 그리고 이어지는 포스트시즌까지 견딜 체력과 함께 부족했던 기술을 집중해서 보완하고 발전시키는 기회인 덕분이다. 새로 합류한 선수들과의 만남과 적응도 스프링 캠프부터 시작된다. 오프 시즌 동안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던 외국인 선수들도 전지훈련 일정에 맞춰 곧장 미국으로 합류한다.

한 달이 넘는 긴 훈련 기간 동안 선수단의 훈련 스케줄은 꽤나 빠듯하다. 보통 오전 9시부터 얼리워크를 시작해 10시부터 워밍업을 한다. 훈련은 투수조와 야수조로 나뉘어 진행된다. 톱토스, 수비, 견제와 주루 그리고 타격과 피칭 등의 기술력은 물론 민첩성과 체력을 기르기 위한 훈련도 병행한다. 포지션에 따라 개별 훈련도 빠지지 않는다. 오후의 웨이트트레이닝과 팔꿈치, 어깨 보강 훈련까지 마치면 시간은 어느덧 오후 3시. 너무 짧은 거 아니냐고? 그럴지도 모른다. 히어로즈의 훈련은 다른 팀에 비해 일찍 마친다. 하지만 집중훈련을 하기 때문에 다른 팀과 시간상으로만 단순 비교할 수는 없다.

36일간 1, 2차로 나뉘어 진행된 전지훈련의 가장 큰 성과는 부상 선수 없이 건강한 모습으로 복귀한 것이다. 새롭게 구성한 선발 투수진의 점검 역시 이번 스프링 캠프를 통해 얻은 큰 수확이다. 새로운 타순과 확 높아진 수비의 안정성 역시 미국 애리조나에서 진행된 전지훈련을 통해 얻은 결과다.



3루 코너에서 날아오는 공을 잡으려는 김해성 선수.



코칭 스태프가 던진 공을 빠르게 누야쳐려는 히어로즈의 내야수들.



배팅 케이지 안에서 타격 연습 중인 서건창 선수.



서건창 선수와 함께 타격 자세를 고민 중인 김해성 선수.



한 달이 넘는 전지훈련을 마치고 선수들이 카메라 앞에서 2019년 시즌의 각오를 다진다.



허정협 선수가 뜬공 포구 연습 중이다.

히어로즈의 몸짱은 이렇게 만들어진다

히어로즈 선수 중에는 탄탄한 체격을 자랑하는 선수들이 많다. 몸짱 못지않은 멋진 모습은 한 시즌을 거뜰히 소화하는 체력과 함께 타석에서의 파괴력으로 연결된다.

언제부터가 히어로즈 선수들이 우람한 체구를 자랑하기 시작했다. 지난 시즌과 확 달라진 체격을 선보인 선수도 꽤 많다. 이들의 변화는 단지 겉모습만이 아니다. 부상 없이 한 시즌을 소화할 뿐 아니라 이전과는 확 달라진 성적을 뽐낸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야구선수들은 의도적으로 웨이트트레이닝을 피했다. 유연성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은 많은 선수들이 꾸준한 훈련을 통해 근육량을 늘린다. 그 트렌드의 중심에 있는 팀이 히어로즈다. 히어로즈는 체계적이고 강도 높은 웨이트트레이닝을 통해 야구에 필요한 근육을 더하고 유연성까지 함께 챙기는 프로그램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변화의 결과는 타격 성적에서 확인할 수 있다. 히어로즈의 장타력은 KBO 리그의 모든 팀이 두려워할 정도다. 피칭이나 수비에 필요한 근육 역시 웨이트트레이닝을 통해 강화한다.

전지훈련 기간에도 히어로즈 선수단은 체육관에 모여 웨이트트레이닝에 집중한다. 이들은 오전부터 진행된 야외 훈련을 마치고 저마다 필요한 근육을 단련하기 위해 무거운 무게를 들고 부드러운 움직임을 통해 유연성을 기른다. 반년 이상 진행되는 시즌에 대비하기 위한 체력과 함께 서로의 운동을 도와주며 팀워크도 다진다. 미국 애리조나에서 진행되는 3주 정도의 1차 전지훈련의 일정은 이렇다. 이어지는 투산에서의 2차 전지훈련은 연습경기 일정에 따라 다양한 훈련을 유연하게 진행한다.

6시간 정도의 긴 훈련을 마친 이후 선수단의 모습은 어떨까?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휴식이다. 다음날 이어질 연습을 준비하며 착실히 휴식을 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숙소에서 한국의 방송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선수도 있고, 숙소의 수영장에 가거나 간단히 골프를 치기도 한다. 근처 마트에 가서 생필품을 구입하는 선수도 있는데, 특별히 살 게 없어도 동료 선수를 따라 나가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물론 매일 훈련을 하는 건 아니다. 쉬는 날도 있다. 휴식일 전날 저녁에는 선수단이 미국까지 찾아온 가족들을 만나거나 근처의 프로농구 경기장을 찾기도 한다.



무거운 장비를 들고 있는 김규민 선수의 모습.



이정후 선수가 진지한 표정으로 웨이트트레이닝 중이다.



탄탄한 팔 근육을 자랑하는 김하성 선수.



훈련 중에도 미소를 잃지 않는 송성문 선수.



훈련 중 잠시 쉬고 있는 김수환, 김해성 선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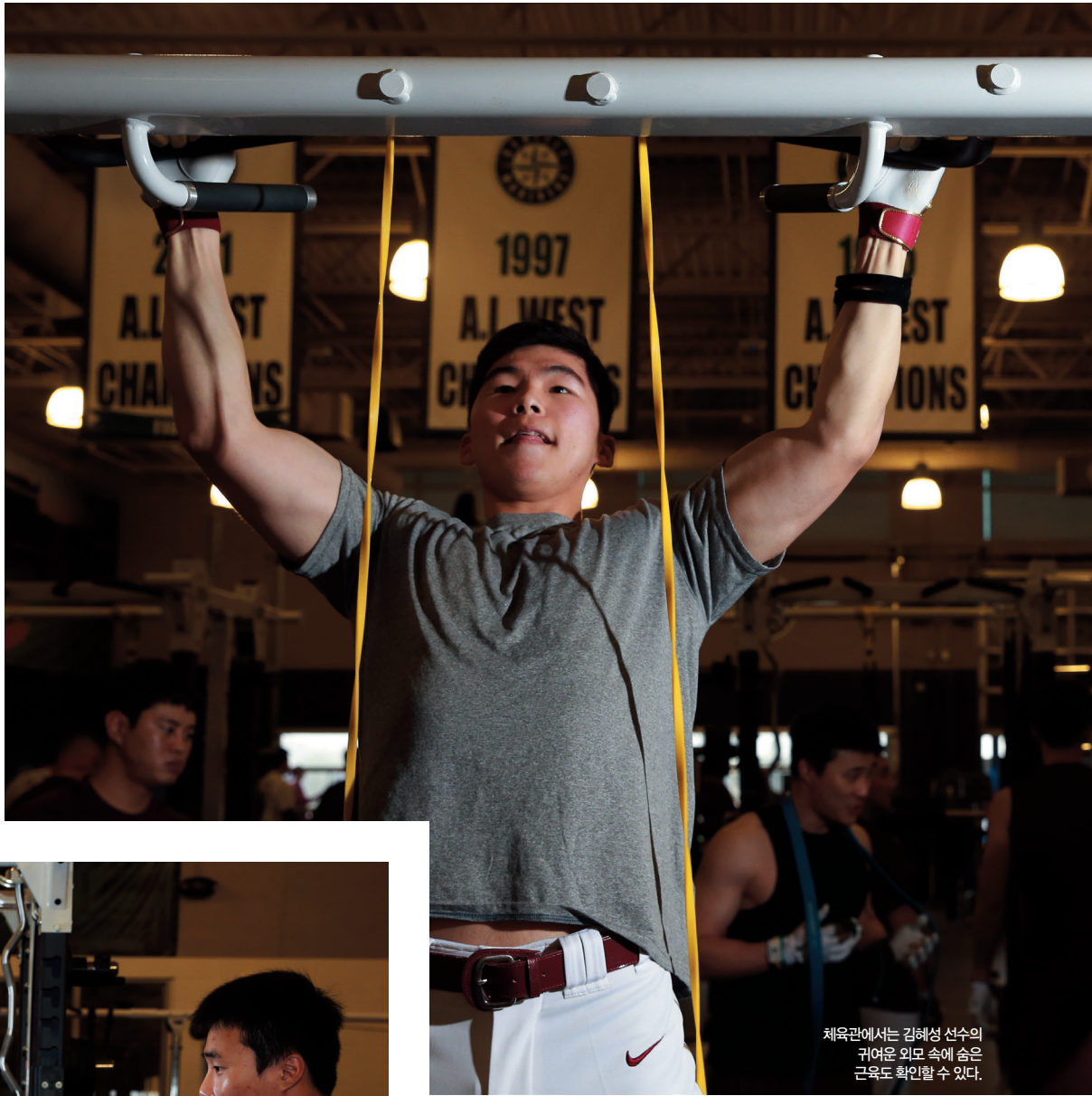
진지한 표정으로 훈련 중인 양기현 선수.



유연성 훈련 중인 선수들의 모습.



훈련을 마친 모습조차 멋진 김규민 선수.



체육관에서는 김혜성 선수의 귀여운 외모 속에 숨은 근육도 확인할 수 있다.



박병호 선수와 김하성 선수가 타격할 때 쓰는 근육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히어로즈의 코칭 스태프가 꼼꼼하게 재능은 프로그램에 맞춰 훈련한다.



서건창 선수가 근력과 유연성을 함께 훈련하는 중이다.



거울을 보며 바른 자세로 훈련 중인 허정협 선수.

2019 새로운 히어로즈

2019년은 히어로즈에게 유난히 새로운 것이 많다. 메인 스폰서와 함께 팀명이 바뀌었고, 팬들이 앉는 자리에도 새로운 이름이 붙었다. 에디터 김용현

1 KIWOOM

지난 시즌을 마치자마자 본격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한 히어로즈의 새로운 메인 스폰서, 주인공은 혁신적인 기술과 서비스로 한국의 주식시장 점유율 1위를 자랑하는 키움증권. 따라서 지난 9년 동안 사용한 이름과 함께 로고, 유니폼 그리고 선수들의 장비까지 모두 새롭게 바뀌었다. 하지만 히어로즈를 상징하는 버건디 컬러와 홈 경기장으로 쓰는 고척스카이돔 등 여전한 것도 많다. 지난 1월 15일에 새롭게 선보인 이름은 키움히어로즈. 앞으로 5년 동안 선수들은 가슴에 키움을 그리고 헬멧엔 새로운 K로고를 달고 그라운드를 누빈다.

2 7월 20일을 주목하라

KBO 리그 10개 팀의 팬들이 가장 기다리는 경기는 역시 올스타전. 올해는 7월 20일 새롭게 문을 연 창원 NC파크에서 열릴 예정이다. 지난해 올스타전은 히어로즈 팬들에게 여러모로 기억에 남았다. 김하성이 세 타석 동안 2개의 홈런을 치며 MVP인 미스터 올스타에 선발됐기 때문이다. 올해도 타이거즈, 이글스, 트윈스, 다이노스와 함께 나눔 올스타팀에 합류한다. 올스타전 휴식기는 4일에서 7일로 확대됐다.

3 새로운 얼굴

2019년 라인업에는 유난히 새로운 얼굴이 많이 눈에 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이름은 외국인 선수 투수 에릭 요키시. 여기도 새롭게 합류한 12명의 신인 선수도 주목해야 한다. 젊은 선수들의 눈부신 성장으로 매 시즌 뛰어난 활약을 이어가고 있는 히어로즈의 성적은 올해도 기대할 만하다.

4 한 시즌은 모두 144경기

히어로즈는 올해 9월까지 약 6개월 동안 모두 리그 144경기를 치르게 된다. 다른 9개 팀과 16번씩 만나는 일정. 포스트시즌 일정은 우천이나 기상 악화 등으로 순연된 경기의 일정이 확정되면서 9월 중순 이후로 정해진다. 지금까지 편성된 일정은 9월 13일까지로, 리그 전체 720경기 중 715경기. 남은 다섯 경기는 연기된 경기와 함께 새롭게 편성될 예정이다.

5 어린이날에도 만나요

고척스카이돔은 쾌적한 환경 덕분에 가족 단위의 관람객이 야구 경기를 즐기기 좋다. 뜨거운 햇볕을 가려주는 돔 안에서 경기를 관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침 올 시즌에는 어린이날에도 고척스카이돔 안에서 히어로즈의 경기를 관람할 수 있다. KBO가 정한 어린이날 격년제 편성 원칙 덕분이다. 지난해의 아쉬움을 올해는 라이온즈와의 경기를 통해 맘껏 풀어보길. 올해를 놓치면 2년 후인 2021년 시즌까지 기다려야만 한다.

6 같은 자리, 다른 이름

히어로즈는 올 시즌 위치에 따라 스카이박스, R.d-club, 테이블석, 외야석, 내야석 등 13가지 종류의 좌석을 제공할 예정이다. 다만 내야 지정석은 이름을 바꿨다. 기존 스카이블루석이 히어로즈를 상징하는 컬러인 다크버건디색으로, 블루석이 버건디색으로 새로운 이름을 갖게 된 것. 하지만 가격은 여전하다. 지난 시즌과 입장권 가격을 동결한 덕분이다. 히어로즈의 홈구장인 고척스카이돔은 지난해와 같은 가격으로 경기를 즐길 수 있다.

7 화성 대신 고양

히어로즈 2군 선수단에도 변화가 이어진다. 2014년부터 다섯 시즌을 뛰었던 경기도 화성을 떠나 고양에 새 둠지를 튼 것. 고양 히어로즈란 새로운 이름으로 퓨처스리그에 참여해 풍성한 유망주를 자랑할 예정이다. 팬들 역시 더욱 좋아진 접근성의 고양야구장에서 앞으로 히어로즈를 이끌 선수들의 모습을 쉽게 접할 수 있다. 퓨처스리그 역시 9월까지 진행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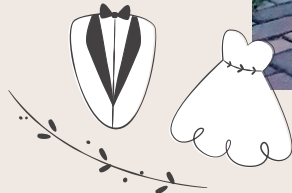




우리 결혼했어요!

팀이 필요한 자리에서 꾸준히 실력을 뽐내던 장영석이 결혼을 했다. 마음의 안정까지 얻은 그가 히어로즈의 내야를 더욱 든든하게 지킬 것으로 기대된다. 에디터 김용현

1 로맨틱한 분위기를 연출한 장영석&이도연 부부. 2 소화형 데이트를 즐긴다는 커플은 웨딩 사진도 재미있게 촬영해 주변 사람들의 부러움을 진득 싣다. 3 결혼식당에는 다양한 컨셉트로 만든 돌만의 웨딩 사진이 가득했다.



웨딩 사진을 통해 색다른 모습을 보여준 박정음 선수



로맨틱한 결혼 사진을 남긴 허정협&김지은 커플.

지난해 12월 8일, 내야수 장영석이 인생 2막을 열었다. 지인의 카페에서 우연히 만나 사랑을 키운지 2년 만이다. 이날 유난히 많은 야구선수들이 결혼을 했지만 히어로즈의 선수들은 인천에서 진행한 결혼식까지 찾아와 장영석&이도연 커플의 결혼을 축하했다. 장영석은 야구선수가 갖는 직업의 특성을 모두 이해해주는 신부의 배려에 반해 결혼을 결심했다고. 코타키나발루로 신혼여행을 다녀온 장영석 선수는 신혼이라 더욱 애뜻했을 법한 스프링 캠프 기간이지만 더 나아진 타력과 함께 수비 실력을 뽐냈고, 새로운 시즌의 출발도 꽤 좋다. 그는 박병호 선배의 비밀 조언이 도움이 됐다면 너스레를 떨었다.

새롭게 가정을 꾸린 선수는 장영석 선수만이 아니다. 12월 2일에는 외야수 박정음 선수가 먼저 화촉을 밝혔다. 둘의 연애 기간은 무려 8년. 그는 결혼 이후 떠난 2군 전지훈련을 성실하게 보내며 시즌 개막과 함께 1군 엔트리에 이름을 올렸다. 그 역시 경기에 나설 때마다 안정된 실력으로 공격과 수비에서 모두 강한 인상을 남기고 있다. 외야수 허정협 선수는 4년의 긴 연애를 마무리하고 12월 15일에 결혼식을 올렸다. 마음의 안정을 얻은 세 선수의 새로운 시즌이 인생 2막만큼 기대된다.

출근길에 포착한 영웅의 패션

이른 아침에도 스타일을 잃지 않는 키움이어로즈 영웅들의 출근길 패션. 에디터 김지덕



서건창(내야수)

뛰어난 주루 센스를 갖고 있는 서건창은 의상을 모두 블랙으로 통일한 뒤 화이트 스니커즈를 매치해 깔끔한 블랙&화이트 패션을 보여줬다.



조상우(투수)

키움이어로즈의 마무리 투수 조상우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포스 있는 올 블랙 패션을 선보였다. 로고 장식의 후드 점퍼와 야구 모자가 자칫 지루할 수 있는 스타일에 활력을 더해준다.

허정협(외야수)
귀공자처럼 곱상한 외모로 아이돌처럼 소녀팬들을 물고 다니는 허정협. 카무플라주 패턴 점퍼가 스타일에 에지를 더한다.



송성문(내야수)
바쁜 아침에는 티셔츠에 데님 팬츠처럼 간단하게 입는 것이 최고. 뭔가 부족하다고 느껴진다면 송성문 선수처럼 화려한 프린트의 티셔츠를 선택해보자.



홍원기(수비 코치)

홍원기 코치가 아우터로 선택한 니트 카디건은 아침저녁은 쌀쌀하고 낮에는 포근한 요즘 같은 계절에 딱 어울리는 아이템. 톤온톤의 색상 매치와 가죽 스니커즈의 조합에서 남다른 패션 센스가 느껴진다.



이지영(포수)

점퍼 주머니에 손을 꽂고 걷는 모습이 세상 편안해 보이는 이지영. 적당히 피트되는 데님 팬츠에 브이넥 셔츠를 매치하며 군더더기 없는 스타일을 선보였다.



브랜드 나이트(투수 코치)
 체크 셔츠와 데님 팬츠,
 여기에 백팩을 어깨에
 툭 걸치며 편안한 룩을
 보여준 브랜드 나이트
 코치. 자신감 넘치는
 모습과 단단한 체격
 덕분에 스타일이 더
 멋있어 보인다.

양현(투수)
 타이포 장식의 티셔츠와 워싱 데님으로 캐주얼한 스트리트 룩을
 연출한 양현. 여기에 백팩과 스니커즈가 더해지니 훨씬 편안해
 보인다.



마정길(불펜 코치)
 불펜 코치 마정길의
 스타일은 그야말로
 실용적인 패션. 두꺼운
 아우터 대신 패딩
 베스트를 선택해 따뜻하고
 활동성도 강조했다.

김규민(외야수)

실력은 기본. 적극적인 팬 서비스로
 사랑 받는 김규민은 길고 슬림한
 보디라인을 강조한 스타일로 눈길을
 사로잡았다. 피트되는 데님과 가죽 재킷의
 조화가 터프하면서도 세련된 인상을 준다.



박병호(내야수)

박병호는 그레이 톤
 야상에 빛바랜 듯한
 워싱진을 매치해
 자연스러우면서도
 빈티지한 멋을 냈다.
 야구 모자를 무심하게
 눌러써 더 시크해 보인다.



신재영(투수)

베이식하면서도 완성도
 높은 패션을 보여준
 신재영 투수. 블랙으로
 통일한 슬랙스와 티셔츠
 위에 그레이 톤 트렌치
 코트를 매치한 센스에
 박수를 보낸다.



최원태(투수)

올 블랙 패션이 어딘가
 허전하게 느껴진다면
 최원태 투수처럼 신발에
 힘을 줘볼 것. 골드 컬러의
 어글리 슈즈 덕분에
 깔끔하면서도 지루하지
 않은 스타일을 완성했다.



박주성(투수)
 작은 센스가 스타일 지수를 올리는 법. 박주성 선수는 흰 티셔츠 위에 브이넥 맨투맨을 레이어드한 뒤 롤업 팬츠를 매치하고 투박한 운동화로 마무리했다.



김수환(내야수)
 옛된 외모를 아직 간직하고 있는 김수환의 출근길 패션 포인트는 발목까지 롤업한 데님 팬츠. 기본적인 스타일인데도 한 곳 차로 심심해 보이지 않는 패션을 완성했다.

장정석(감독)

댄디한 스타일로 키움히어로즈의 패셔니스타로 꼽히는 장정석 감독. 오늘 패션의 포인트는 롱 베스트. 어떤 룩에도 무난하게 레이어링할 수 있는데다 편안하면서도 멋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하는 아이템이다.



이승호(투수)

늦잠을 자 미처 머리를 손질할 시간이 없었다면 이승호 투수처럼 야구 모자를 쓴 뒤 후드 셔츠를 뒤집어써보자. 놀린 머리도 감쪽같이 가릴 수 있고 아무렇게나 입어도 멋스럽다.



박도현(배터리 코치)
 블랙과 블랙의 조합은 언제나 옳다. 심플하면서도 캐주얼한 후드 집업에 블랙 데님. 여기에 블랙 스니커즈까지. 누가 입어도 실패할 수 없는 스타일이다.



김동준(투수)
 심플하면서도 느낌 있는 스타일을 보여주는 김동준 투수의 패션 포인트는 하이탑 슈즈. 보기 좋게 피트된 데님 팬츠가 스타일 지수를 더한다.



박정음(외야수)

박정음은 기본에 충실한 패션을 선호했다. 로고로 포인트를 준 후드티와 데님 팬츠의 조합은 다소 뻘하게 느껴져도 절대 실패할 수 없는 조합.

윤영삼(투수)

이른 아침부터 기다려준 팬들을 위해 손가락 하트를 보여준 윤영삼 투수. 단연 눈에 띄는 아이템은 두꺼운 체인 목걸이. 티프한 외모에 딱 어울리는 아이템이다.



이정후(외야수)

진한 눈썹과 선 굵은 외모가 매력인 이정후는 후드 티셔츠 위에 데님 재킷을 걸쳐 대학생처럼 풋풋한 스타일을 완성했다.

오윤(외야/주루코치)

넉넉한 실루엣의 트랙 팬츠와 카키색 야상으로 활동성에 포인트를 준 코치 오윤. 발목을 살짝 드러낸 길이의 팬츠를 선택한 센스가 돋보인다.



장영석(내야수)

넉넉한 사이즈의 맨투맨 셔츠가 딱 벌어진 어깨를 더욱 돋보이게 만든다. 아무렇게나 눌러쓴 야구모자 덕분에 스포티한 느낌이 배가됐다.



김성민(투수)

스웨그 넘치는 스타일로 팬들의 시선을 한눈에 모은 김성민. 양말 안에 넣은 팬츠와 머리에 가볍게 톡 얹은 스냅백이 스타일 포인트다.



허문회(수석 코치)

그레이 재킷에 그레이 카고 팬츠를 매치하며 세련된 톤온톤의 컬러 조합을 보여준 허문회 수석 코치. 무심하게 옆구리에 긴 클러치가 스타일링 지수를 올려준 일등 공신.



양기현(투수)

사소한 차이가 세련된 스타일을 완성하는 법. 투수 양기현은 발목을 드러내는 크롭트 데님에 데님 팬츠와 블랙 점퍼를 매치해 편안하고 스포티한 룩을 연출했다.



히어로즈 사랑 나눔

히어로즈 선수단은 시즌을 마치면 곧바로 봉사활동에 참여한다. 팬들의 사랑에 보답하는 히어로즈만의 방식이다. 에디터 류민수



프로 리그는 팬들의 사랑이 있어야만 존재할 수 있다. KBO 리그 그리고 그 안에서 뛰고 있는 히어로즈 역시 마찬가지다. 그래서 히어로즈 선수단은 시즌을 마치면 곧바로 봉사활동을 시작한다. 고척스카이돔과 가까운 지역에서 도움이 필요한 곳이면 이들이 달려간다. 지역과 함께 상생하려는 히어로즈의 노력이다. 유소년 야구선수들의 발전을 위한 고민 역시 사회 공헌 사업을 통해 진행한다.

지난 시즌을 마친 히어로즈 선수단이 가장 먼저 찾은 곳은 서울 양천구에 위치한 아동 양육 시설 서울SOS어린이마을. 사회 공헌 사업인 '희망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한 사랑나눔 행사에 참여했다. 2018년 12월 6일에 열린 이날 행사에는 김상수, 오주원 선수 등 20여 명의 선수단과 함께 히어로즈의 공식 SNS를 통해 진행한 선행 사연 응모 이벤트에 당첨된 9명의 팬이 함께했다. 선수단과 팬들은 아이들과 함께 크리스마스 트리와 케이크를 만들며 짧지만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선수단이 준비한 후원금 1000만원도 함께 전달했다.



서울SOS어린이마을의 아이들과 함께 크리스마스 케이크를 만들고 있는 이승호 선수.



아이들의 재롱을 보며 웃음을 터뜨린 김상수, 김동준 선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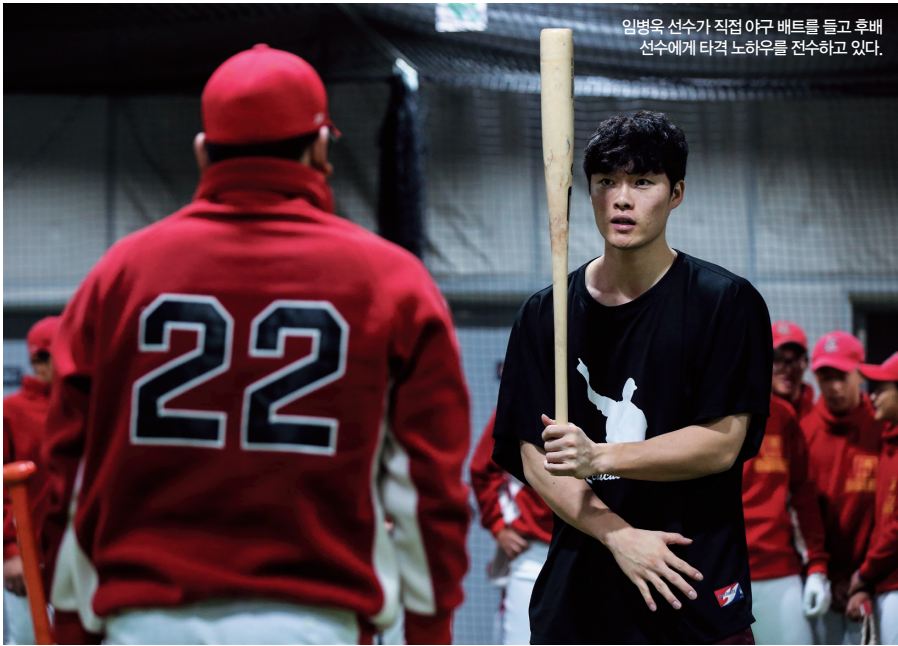
임병욱 선수가 선물로 건넬 사인볼을 준비하고 있다.



선수단이 함께 모은 후원금 1000만원도 전달했다.

선수들은 아이들과 함께 크리스마스 트리를 꾸미며 시간을 보냈다.





임병욱 선수가 직접 야구 배트를 들고 후배 선수에게 타격 노하우를 전수하고 있다.



히어로즈 선수단이 마정길 코치의 지휘 아래 청주중학교 야구부원들과 함께 원포인트 레슨을 준비하고 있다.



후배들과 함께 대화 중인 송성문, 임병욱 선수.



김선기 선수가 후배 투수의 자세를 교정하고 있다.



발의 위치까지 꼼꼼하게 점검하며 원포인트 레슨을 진행했다.

2018년 12월 27일, 다시 히어로즈 선수단이 모였다. 이들이 도착한 장소는 충청북도 청주에 위치한 청주중학교. 히어로즈 선수단은 청주중학교 야구부원들을 위한 일일 코치는 물론 우상이나 다름없는 선수들의 사인회와 사진 촬영을 준비했다. 이날 행사에는 마정길 코치를 비롯해 송성문, 신재영, 임병욱, 김선기 선수 등이 참여해 중학교 야구선수들의 원포인트 레슨을 진지하게 진행하며 준비한 야구용품들을 선물로 나눠주기도 했다. 시즌이 끝나고 한참 쉬고 있을 때이지만, 후배들의 자세를 세심히 살피는 선수들의 모습에서 후배들을 향한 큰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 히어로즈는 “앞으로도 계속 유소년 선수들의 기량 발전을 위해 재능 기부 활동을 펼칠 예정”이라고 전했다. 시즌을 마친 후 선수들과 함께 뜻깊은 봉사활동에 나서고 싶다면 히어로즈 공식 SNS(페이스북 www.facebook.com/kiwoomheroesbaseballclub, 인스타그램 @heroesbaseballclub)를 유심히 들여다볼 것. 올해에도 팬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따뜻한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히어로즈 선수단과 함께 단체 사진을 찍은 청주중학교 야구부원들의 표정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음을 알 수 있다.



신재영 선수가 직접 투구 자세 시범을 보이고 있다.



중학생 야구선수들의 투구 자세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 김선기 선수.



티볼 배팅을 통해 효과적인 타격 자세를 재미있게 전달하고 있는 송성문 선수.